

[여성사역자대회] 주님의 성찬

[본문] 막 14:22~26 / 2003 / 페이지 수: 4

오늘 주제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신약에서 네 번이나 언급되었고 우리가 1년에도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성만찬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수행되어 온 귀한 제도이며 성령이 가까이 임하는 예배형식입니다.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 축복한 떡과 잔, 감사가 선포된 떡과 포도주를 '유카리스트(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은 유월절 식사 중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부분입니다. 이 만찬은 '카디쉬'라고 유대인들이 나누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시켜 다락방에서 직접 유월절 만찬을 준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것을 너희와 나누고 싶었다고 하시면 제자들에게 떡을 떼 주시고 잔을 나눴습니다. 이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평소 모습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만찬을 이끄십니다.

성만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들고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로 아주 좋은 예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우리는 성찬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아무리 회개해도 새로워질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떡을 먹어 내 몸이 주님의 몸 같이 되고 주님의 잔을 마셔 내 모든 것이 깨끗해져 용서받고 다시 시작해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계약을 인준할 때 희생물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계약의 피를 보라고 했습니다. 예전 희생제사는 내 죄를 대신해 염소나 동물을 죽여 피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행해 언약의 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용서해주는 죄 사함에 대한 새 언약이니 잊지 마라.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대로 해봐라' 하시며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탁을 받아 항상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감옥에 갇혀어도 밥과 국을 놓고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지난 주 성찬식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비취보고 성찬이 있기 전 몸을 정결히 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등 성찬을 미리 기억하고 준비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다

성만찬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도래할 죽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사역을 하셨을 때 열 두 제자와 가졌던 관계를 결산하시고 부활 후 맺게 될 영원한 관계로 영속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로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가지만 내 몸은 여기 두고 간다. 이것은 축복의 원천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와 내 관계가 영원한 것이다’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약을 이미 맺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29)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너희와 함께 성찬식을 할 때까지는 이것이 마지막 성찬이다’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신속한 재 연합에 대한 말씀과 기대로 성찬을 행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음식을 분배하시며 시각적으로 자기에게 닥칠 죽음과 연결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축복의 원천으로 주셨고 그와 우리들 간의 새로운 결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식사는 구원의 성체로서, 동시에 죽음으로 깨뜨릴 수 없는 연합의 서원이 되었습니다.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잔치의 초대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택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떼어 주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축복하시고 너희에게 보냈는데 십자가에서 내 몸을 잘라 너희에게 준다’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나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떡을 가지사에 나오는 ‘테이크(take)’는 ‘가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해 쓸 테니 너는 순종만 하면 돼’라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그 분의 사랑의 포로로서 그 분 안에 속해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떡을 택해 축복하고 나누시니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신 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축복 받았기 때문에 공생

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보시며 "나는 너를 알고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만 보면 좋아 내 기쁨을 이길 수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방을 뜯는 것은 '브로큰(broken)'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찢려 제물인 어린 양 같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많고 찢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찢기고 부서져도 나는 주님과 살아가고 죽는 날까지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은 육체적인 삶 속에서 상처 받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상처 입은 채 다른 상처 받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지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내가 완전히 부서져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라도 주님이 일으켜주시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분께 헌신하고 살아보십시오.

부서진다는 것은 다 바스러져서 가루처럼 미소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위로도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성령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의연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져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앞에 나가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내 몸이 부서져 약한 것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훈련으로 삼아 우리 인격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 합니다. 우리가 부서진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주님이 다스리실 때 빨리 갖다 대서 모닝 빵처럼 동그랗게 변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나눠주고 축복하며 예쁘게 사십시오.

주님의 고난이 넘침같이 위로도 넘친다

이제는 여러분을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드러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쪼개 이 사람에게 내 시간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내 돈으로 음식을 사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돕게 한다는 것을 성령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충우돌 하며 사는 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만 보면 웃음이 나온다'고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자기 시간, 자기 노동을 주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제자

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식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실 때 축복이 있자마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심을 깨달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아까 성경을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맞다”고 말합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 성찬을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같이 절 선택해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하고 기도하십시오.

*** 출처 : 온누리신문**